

http://dx.doi.org/10.17703/JCCT.2018.4.4.279

JCCT 2018-11-35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 관련요인

### A Study on Resil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in South Korea

김미영\*, 김윤아\*\*

MiYoung Kim\*, Yun Ah Kim\*\*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을 조사하여, 향후 북한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은 B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29명으로,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까지, 적응유연성,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은 평균 3.46점, 적응유연성은 남한에서 종교를 가진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높았으며, 설명력은 11.7%(F=9.460,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을 촉진하여 적응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적응유연성,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ilienc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and explored methods of improving their resilience. 129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trained in B city,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November, 2016 to February, 2017. The resilience,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self-esteem were measured. The mean scores were 3.46 for resilience.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resilience and self-esteem.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on the resilience was examined using regression analysis. Models including the variables explained 11.7%(F=9.460, p<.001) of the variance for the resilience.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continuously intervene and help North Korean defectors so as to promote their resilience and self-esteem.

**Key words** : Refugees, Resilience, Health promoting behavior, Self-esteem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적응 동안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1]. 특히, 남한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

운 문화에 대처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는 적응유연성이 영향을 준다[2].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은 남한사회에서 신체적 기능이나 심리적 기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3]에 남한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남한 사회에 적응[4]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제1저자)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10월 12일, 수정완료일: 2018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X일

Received: October 12, 2018 / Revised: November 14, 2018

Accepted: November, XX, 2018

\*Corresponding Author: kimyunah-nur@kaya.ac.kr

Dept. of Nursing, Kaya Univ, Korea

적응유연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적응유연성은 개인이 신체, 심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역경을 이겨내어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다[1]. 이런 역경에서 긍정적인 적응[5]과 문화적 변화에도 정상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결과[6]로 나타나는 것이 적응유연성이다. 한 개인이 적응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극복[7]과 스트레스로부터 건강한 회복력[4]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8].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일련의 정신질환과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주고[9], 높은 자아존중감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적응력을 회복하게 한다[10].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처해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역경이나 변화를 극복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남한사회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잠재되어 있던 질병들이 남한 입국 후 발병하는 사례가 많아[11], 1년 간의 유병률이 76%[12]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원이라는 공간에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는다[12]. 그러나, 남한사회에 적응시 고착된 습관에 따른 부적절한 건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건강상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적응유연성은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기에[6], 북한탈주민의 건강증진행위와 적응유연성은 상호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건강증진행위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적응유연성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 편입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대처와 건강한 회복력인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상황 등에 융통성있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를 강화시키고 일반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적응유연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국내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적응유연성 연구는 청소년 대상[6, 13]의 일부 연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2]에 대한 연구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행위 중심으로 파악하여,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와 적응유연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한다.

## II. 연구의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와 적응유연성 간의 관련성과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 후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5개일 때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19명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존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4]가 저작권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발한 Self-esteem Scale(SES)을 번안하여 사용한 Jon[15]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의 1~5점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5점 Likert 척도이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85$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 2) 건강증진행위

본 연구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생활양식과 같고, 생활양식의 구성요소가 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16].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Walker, Schris와 Pender[16]가 개발한 The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를 Suh[17]가 번역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인 자기자신에 대한 건강책임 8문항, 신체활동 및 운동 8문항, 영양 및 식이 9문항, 영적 성장 9문항, 대인관계 8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4점의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4점 Likert 척도이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92$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 3) 적응유연성

본 연구의 적응유연성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Kim과 Kim[18]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강인성 7문항, 종교성향 6문항, 친밀감 7문항, 사회지지 6문항, 꿈과 목표 5문항, 실존적 영성 6문항, 인내심 5문항의 7개 하위요소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5점 Likert 척도이다. 평균점수

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90$ ,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 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 기간 중 북한이탈주민의 연말연초 모임시 연구보조원이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13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나, 일반적 특성을 기재하지 않은 1부를 제외한 129부(99.2%)의 설문지를 최종분석하였다. 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료수집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가보고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시간은 평균 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이 끝난 후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품을 전달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와 적응유연성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과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성이 23.3%, 여성이 76.7%였으며, 나이는 20대 24.0%, 30대 42.7%,

40대 20.9%, 50대 이상 12.4%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교육정도는 중학교 36.4%, 고등학교 49.6%, 대학교이상이 14.0%, 남한 입국시 동남아시아 경유한 정도는 없음 41.9%, 1개 35.7%, 1개 이상 22.5%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종교는 없음 51.2%, 있음이 48.8%, 결혼정도는 미혼 27.1%, 기혼 72.1%로 나타났다. 지각된 신체건강정도는 건강하다 24.8%, 보통 41.9%, 건강하지 못한 경우 33.3%, 지각된 정신건강정도는 건강하가 26.4%, 보통 37.2%, 건강하지 못하다 36.4%이며, 신체질환으로 최근 병원을 방문하는 건강문제는 근골격계 27.1%, 호흡기계 12.4%, 정신건강문제 8.5%, 심장질환 7.0%, 다른 증상인 경우 8.5%로 나타났다<표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0(23.3)
	Female	99(76.7)
Age (year)	20-29	31(24.0)
	30-39	55(42.7)
	40-49	27(20.9)
	≥50	16(12.4)
Education in North Korea	Middle	47(36.4)
	High	64(49.6)
	≥College	18(14.0)
South Korea via southeast Asian	None	54(41.9)
	<1	46(35.7)
	≥1	29(22.5)
Religion in South Korea	No	66(51.2)
	Yes	63(48.8)
Marital status in South Korea	Unmarried	35(27.1)
	Married	93(72.1)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Healthy	32(24.8)
	Fair	54(41.9)
	Poor	39(33.3)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Healthy	34(26.4)
	Fair	48(37.2)
	Poor	44(36.4)
Hospitalization for health problem (now)	None	34(26.4)
	Musculoskeletal symptoms	35(27.1)
	Respiratory symptoms	16(12.4)
	Gastrointestinal symptoms	13(10.1)
	Psychiatry symptoms	11(8.5)

	Cardiovascular symptoms	9(7.0)
	Other symptoms	11(8.5)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은 남한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t=12.02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적응유연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나이는 40대에서, 북한에서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동남아시아를 1개 이상 경유한 경우, 남한에서 미혼인 경우, 지각된 신체건강 정도가 건강한 경우, 지각된 정신건강 정도가 건강한 경우, 호흡기계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가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2>.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

Table. 2. Difference in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9)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ilience	
		M±SD	t/F(p)
Gender	Male	3.36±0.34	1.480(.226)
	Female	3.50±0.59	
Age (year)	20-29	3.33±0.59	1.999(.118)
	30-39	3.52±0.55	
	40-49	3.60±0.52	
	≥50	3.29±0.37	
Education in North Korea	Middle	3.45±0.43	2.954(.056)
	High	3.54±0.64	
	≥College	3.20±0.28	
South Korea via southeast Asian	None	3.42±0.50	.288(.750)
	<1	3.48±0.61	
	≥1	3.52±0.50	
Religion in South Korea	No	3.31±0.52	12.026(.001)
	Yes	3.63±0.51	
Marital status in South Korea	Unmarried	3.61±0.57	3.574(.061)
	Married	3.41±0.52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Healthy	3.55±0.52	1.380(.225)
	Fair	3.36±0.55	
	Poor	3.48±0.52	
Perceived mental health status	Healthy	3.42±0.54	.366(.694)
	Fair	3.41±0.55	
	Poor	3.41±0.53	
Hospitalization for health problem (now)	None	3.42±0.54	.331(.920)
	Musculoskeletal symptoms	3.48±0.58	
	Respiratory symptoms	3.63±0.53	
	Gastrointestinal symptoms	3.46±0.41	

	Psychiatry symptoms	3.39±0.65	
	Cardiovascular symptoms	3.42±0.62	
	Other symptoms	3.46±0.48	

###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 적응유연성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3.84점, 건강증진행위는 2.47점, 적응유연성은 3.46점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주요변수의 평균정도  
 Table. 3. Levels of Major Variables (N=129)

Variables	Obtained range		
	Min	Max	M±SD
Self-esteem	26.00	50.00	33.84±4.07
Health promoting behavior	1.40	3.94	2.47±0.05
Resilience	1.29	4.52	3.46±0.54

###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 적응유연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적응유연성은 자아존중감( $r=.214, p=.015$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N=129)

Variables	Self-esteem	Health promoting behavior	Resilience
	r (p)	r (p)	r (p)
Self-esteem	1		
Health promoting behavior	.107 (.233)	1	
Resilience	.214 (.015)	.081 (.364)	1

### 5. 대상자의 적응유연성의 영향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적응유연성의 영향요인은 남한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t=13.504, p=.001$ ),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t=2.527, p=.013$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적응유연성의 설명력은 11.7%( $F=9.460, p<.001$ )로 나타났다<표 5>.

표 5. 적응유연성의 영향요인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N=129)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2.361	.382		6.187	.000
Religion in South Korea	0.317	.090	.291	3.504	.001
Self-esteem	0.028	.011	.210	2.527	.013
Adj. $R^2=.117, F=9.460, p<.001$					

## IV.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자아존중감, 건강증진행위,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은 5점 만점에 3.46점이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의 북한이탈주민 3.50점[18],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은 3.58점[13]에 비해 낮았다. Kim과 Kim[18]의 연구에서는 남한 입국 후 처음 교육 받는 곳에서 조사하여, 하나원 교육생이 44.1%로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한 사회의 적응 과정으로 볼 수 있는 하나원 수료 이후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였기에 적응유연성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에서 적응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하나원 수료 이후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적응기간에 따른 적응유연성이 점수에서 차이로 약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하나원 수료 이후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적응유연성 정도에서는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 3.31점, 종교가 있는 경우 3.63점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도구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종교가 없는 경우 3.38점에 비해 종교가 있는 경우에 3.56점에서 4.23점으로 높게 나타나[20],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종교는 현재 자신과 환경을 파악하고 현실 넘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 [19]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를 단순히 신앙행위로 조직화된 체계, 의식, 신과의 관계를 위한 상징으로 축소 정의할 수 있지만, 종교적 활동으로 활동의 증가는 자신의 문제성찰[19] 등으로 범위를 확대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가 있는 경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여 적응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대상자의 적응유연성 정도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여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개인이 자신을 얼마가 가치 있는 것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이다[14].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 정말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게 되므로[15],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적응유연성성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는 없으나, 자기효능감과 적응유연성이 정적 상관관계[20]를 보이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남한 사회에서 삶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켜 고립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다.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실무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로 적응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약에 대상자에게 적합한 중재가 부족하다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 중에서 일부변수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 적응에 중요한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지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도움을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응유연성을 증대할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삼기 위함이다. 연구결과 적응유연성은 건강 증진행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유연성의 관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남한 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한 필요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적합한 연구이며, 적응유연성을 성장시킬 요소를 확인함에 추가적인 요인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응유연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K. H. Chae, The adapt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effect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524-530, 2017. <http://doi.org/10.5762/KAIS.2017.18.10.524>
- [2] H. A. Kim, S. Y. Lee, K.,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Korean immigra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1, pp.333-354. 2011. <http://doi.org/10.15703/kjc.12.1.201103.333>
- [3] J. Y. Kim, J. H Choi, W. J. Ryou, Impact of PTSD on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ocial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3, No. 4, pp.343-367, 2012. <http://doi.org/10.16999/kasws.2012.43.4.343>

- [4] J. A. Jung, Y. C. Son, J. H. Lee, A study on defecting motive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2, pp.215-248, 2013.
- [5] D. Jackson, A. Firtko, M. Edenborough, Pers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0 No.1, pp1-9, 2007.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12.x>
- [6] S. S. Luthar, D. Cicchetti,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71, No.3, pp. 543-562, 2000.  
<https://doi.org/10.1111/1467-8624.00164>
- [7] Y. N. Kim, B. R. Suh,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that North Korean children and youth defectors perceived,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11 No.1, pp.121-137, 2012.
- [8] H. J. Kim, Y. K.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daptation, suicidal ideation, and self esteem among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16 No.1, pp.9-46, 2015.
- [9] M. M. Mann, C. M. H. Hosman, H. P. Schaalma. N. K. de Vries.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19, No.4, pp. 357-372, 2004.  
<https://doi.org/10.1093/her/cyg041>
- [10] I. S. Son, S. S. Kim, A systemic review of research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5, No.1, pp. 26-57, 2015.
- [11] M. Choe, J. Choi, A study on treatment-seeking behavior of middle-aged and old-age Saetomins in South Kore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1, No. pp. 285-316, 2009.
- [12] I. J. Yoon, S. Kim, Health and medical car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17, No. pp.149-182, 2005.
- [13] J. K. Kim, A. M. Cho, The effect o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among migrant North Korean adolescen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5, No.2, pp.103-119, 2008.
- [14]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5]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11, pp.107-130, 1974.
- [16] S. N. Walker, K. R. Sechrist, N. J. Pender,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Nursing Research*, Vol.36, No.2, pp.76-81, 1987.
- [17] H. M. Seo, Construction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model in elderly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1.
- [18] H. A. Kim, S. H. Kim, Development of a resilience scal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1, pp.63-83, 2007.
- [19] D. G. Blazer, K. G. Meador, The role of spirituality in health aging. Arlington, In: Depp CA, Jeste DV, editors. *Successful cognitive and emotional aging*. Englan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pp. 73-86, 2009.
- [20] S. Min, H. S. Kim, The controlling effect of job consciousness in the adaptation resilience of saetomin on self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1, No. 1, pp.13-22, 2011.